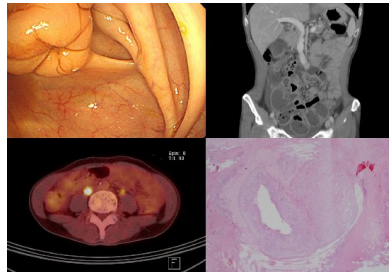


충수돌기에서 발생한 원발성 인환세포암 1예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고경원, 김형욱, 홍정범, 지병훈, 이창석, 김동준, 박승제

서론: 원발성 충수암은 전 소화기 암의 0.5% 미만을 차지하는 아주 드문 질환이다. 또한 수술 전 충수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수술소견 또는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하여 충수암으로 진단된다. 저자들은 결핵성 대장염 의심 하에 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우결장만절제술 시행 후 진단된 충수돌기 인환세포암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4세 남자 환자가 간헐적인 복통 및 1개월간 6 kg의 체중감소를 주소로 타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상 결핵성 대장염 진단 하에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1개월간의 치료에도 증상 호전 없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가족력 및 과거력상 특이소견 없었다. 내원 당시 모든 생체징후 정상 범위였다. 이학적 검사상 우하복부에 압통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상 Ca125가 169.1 IU/ml로 상승되어 있었다. 타병원에서 복부 CT 및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으나 회맹판의 협착이 심하여 말단회장의 관찰 및 생검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본원에서 시행한 복부 CT상 말단회장벽의 비후, 소장 폐쇄소견이 관찰되었다. 임상적으로 악성종양 의심되어 시행한 PET CT상 말단회장의 비후 및 FDG 섭취증가가 관찰되었다. 진단 및 치료 위하여 복강경 우결장 반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도중 결장간막의 심한 유착 및 출혈로 개복술로 전환하여 우결장만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조직 병리학적 소견상 충수돌기에서 종양이 관찰되었으며, 현미경적 소견에서 점막을 포함한 모든 층에서 인환세포암이 진단되었다. 상행결장과 말단회장으로의 직접적인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임파절 전이도 확인되었다. 환자는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다. **결론:** 복통, 체중감소 및 소장 폐쇄증상을 보인 54세 남자 환자에서 수술적 절제술 후 충수돌기에서 발생한 인환세포암을 진단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대장 내시경 시행 중 회장 삼관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의 소장 림프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은희, 이래석, 허주연, 최윤석, 김교희, 오정환, 노상영

Primary lymphoma of the small intestine is commonly diagnosed after serious complications such as bowel perforation and bleeding. It results from vague symptoms and the lack of routine screening program due to low prevalence. Ileal intubation can be used for screening and diagnosing for various small intestinal diseases. However, the value of routine terminal ileum intubation during colonoscopy remains controversial because of its low diagnostic yield. In Korea, there has been no report about asymptomatic primary lymphoma of small intestine discovered during colonoscopy through ileal intubation. Thus, we report a case of asymptomatic primary lymphoma of small intestine incidentally diagnosed through terminal intubation during screening colonoscopy, and review several literatures on small intestinal lymphoma and the value of routine ileal intubation.

